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55호

2025.07.31.(목)

##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중국·광물	中, 안티모니·게르마늄 수출 급감	미국·배터리	美, 중국산 활성음극재에 반덤핑관세 부과
미국·반도체	美, 반도체 관세 2주 후 발표 예상	캐나다·철강	캐나다, 철강 관세를 쿼터 강화 추진
콩고·리튬	코볼드 메탈스, 콩고 리튬 매장지 확보	일본·전기차	프로테리얼, 중히토류 없는 영구자석 제조
미국·반도체	美, 무역합의 위해 中 수출통제 중단 지시	미국·반도체	케이던스, 中에 설계 톨 판매해 벌금 부과

### 공급망 이슈 포커스

미·중·광물	[미·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中 수출통제에 대응해 우회 수입하는 美... 中 단속 강화로 맞대응
미국·배터리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美, 중국산 음극재에 반덤핑관세 93.5% 부과 결정
미국·반도체	[시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美,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반도체 관세 2주 후 발표 예상

### 산업·품목 심층분석

글로벌·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

### 원자재 뉴스 PLUS

리튬 독일, 청정 리튬 생산 위해 Vulcan Energy에 대규모 지원

## II. 월간 공급망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전기동력화 시대의 주역, 영구자석

## IV. 공급망 소식통



2025 WCE 연계 그린에너지·환경산업 수출 프로젝트 상담회(~8.15.)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 주요 공급망 이슈


연번	주요 공급망 이슈	일 자	이슈 내용	자료원
1	<b>중국, 광물</b> 中, 안티모니·게르마늄 수출 급감	7.2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6월 중국의 안티모니와 게르마늄 수출량이 1월 대비 각각 88%와 95% 감소</li> <li>✓ 이는 중국 정부가 전략 광물 밀수출 및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한 특별 단속 체계를 가동한 결과</li> </ul>	로이터
2	<b>미국, 배터리</b> 美, 중국산 활성음극재에 반덤핑관세 부과	7.17.(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중국산 이차전지 활성음극재에 93.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림</li> <li>✓ 해당 관세가 부과될 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활성음극재에 부과되는 실효 관세는 160%</li> </ul>	로이터
3	<b>미국, 반도체</b> 美, 반도체 관세 2주 후 발표 예상	7.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 발표할 예정</li> <li>✓ 트럼프 대통령은 이로써 해외의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li> </ul>	로이터
4	<b>캐나다, 철강</b> 캐나다, 철강 관세율 쿼터 강화 추진	7.1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는 관세율 쿼터를 넘어서는 외국산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li> <li>✓ 한국과 같은 FTA 체결국에는 전년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관세율 적용</li> </ul>	로이터
5	<b>콩고, 리튬</b> 코볼드 메탈스, 콩고 리튬 매장지 확보	7.18.(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코볼드 메탈스가 콩고 정부와 협약을 맺어 리튬 광산 개발권 취득</li> <li>✓ 코볼드는 콩고 정부에 7.31일까지 1,600km<sup>2</sup> 이상의 지정지역에 대한 탐사 허가를 신청할 예정</li> </ul>	로이터
6	<b>일본, 전기차</b> 프로테리얼, 중희토류 없는 영구자석 제조	7.23.(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금속 제조업체 프로테리얼이 중희토류 금속이 필요 없는 전기차용 영구자석을 개발</li> <li>✓ 이는 기존 모터에 적용이 용이해 생산라인을 변형할 필요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함</li> </ul>	닛케이
7	<b>미국, 반도체</b> 美, 무역합의 위해 中 수출통제 중단 지시	7.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럼프 대통령은 미 상무부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 수출통제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li> <li>✓ 이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차질을 빚는 것을 피하고, 정상회담을 성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li> </ul>	파이낸셜 타임스
8	<b>미국, 반도체</b> 케이던스, 中에 설계 틀 판매해 벌금 부과	7.2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반도체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케이던스가 中 군사대학에 제품을 불법 판매하여 미 정부에 1.4억 달러(약 1,944억 원) 벌금 납부</li> <li>✓ 이는 미-중 간 무역협상 재개 시점에서 벌어져 향후 양국 간 교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음</li> </ul>	미 법무부

주간 이슈 포커스

1 마·중 공급망 이슈 돋보기

마·중, 광물 中 수출통제에 대응해 우회 수입하는 美... 中 단속 강화로 맞대응


 中, 6월 안티모니·게르마늄 수출 급감... 희토류 수출은 무역합의에 따라 증가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5.6월 중국의 안티모니와 게르마늄 수출량은 1월 대비 각각 88%와 95% 감소함

\* 안티모니와 게르마늄은 배터리·반도체·군사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이며, 중국은 두 광물의 최대 생산국이자 가공국임. 중국은 2023년에 안티모니를, 2024년에 게르마늄을 각각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시킴.

▶ 앞서 '24.12월,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 미국향 안티모니·게르마늄 수출을 전면 중단


▶ 이에 대응해 미국은 '24년부터 태국, 멕시코 등 제3국을 경유한 우회 구매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게르마늄과 안티모니는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귀 준금속 원소로, 게르마늄은 ▲반도체, ▲광섬유, ▲태양광 전지 등에 사용되며, 안티모니는 ▲난연제, ▲배터리, ▲군수품 등에 사용됨

▶ 2024년 기준, 전 세계 안티모니 생산량 10만 톤 중에서 중국은 6만 톤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게르마늄 역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함

출처: 로이터(7.21.), CSF(중국전문가포럼)(7.23.),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美 기업, 태국·멕시코 경유하여 中 핵심광물 수출금지 조치 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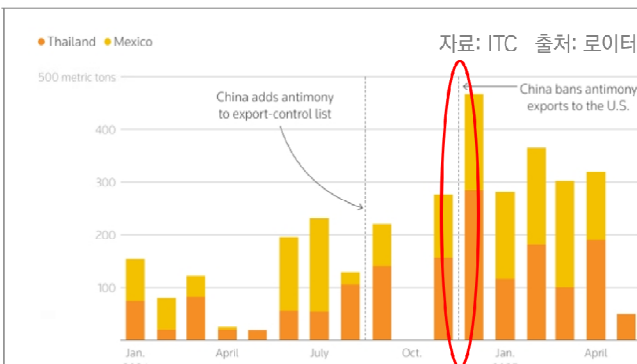
 중국이 '24년 미국에 대해 핵심광물 수출을 금지한 이후, 미국 기업들이 태국·멕시코를 경유하여 중국산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 회사가 이 거래에 관여하고 있음

▶ 미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4.12월 ~ '25.4월 사이에 태국과 멕시코로부터 총 3,834미터톤의 안티모니 산화물을 수입했으며, 이는 지난 3년간의 수입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임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5.5월 기준, 태국과 멕시코는 중국산 안티모니의 상위 3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함

\*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기 전인 '23년에는 두 나라 모두 상위 10위권에 들지 못했음

출처: 로이터(7.9.)



위 표는 '24.1월 ~ '25.5월 중국에서 태국·멕시코로 수출된 안티모니 산화물의 총량을 나타냄. '24.12월, 중국이 미국에 안티모니 수출을 중단한 이후로 태국·멕시코 수출이 급증함

▶ 중국, 핵심광물 우회·밀수출 단속 강화

▶ 중국 정부는 '핵심광물 밀수출 전문 단속 행동 추진회'를 열고 현황을 분석한 후 단속 강화를 지시함

▶ 회의에서 "5월부터 실시된 전문 단속 행동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핵심광물 수출의 허위 신고, 제3국 경유 등 불법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며, "핵심광물 및 관련 기술의 불법 유출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며 강조

▶ 중국은 5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핵심광물 우회 및 밀수출 단속을 추진 중

출처: 중국 상무부(7.19.)

② 데이터로 읽는 공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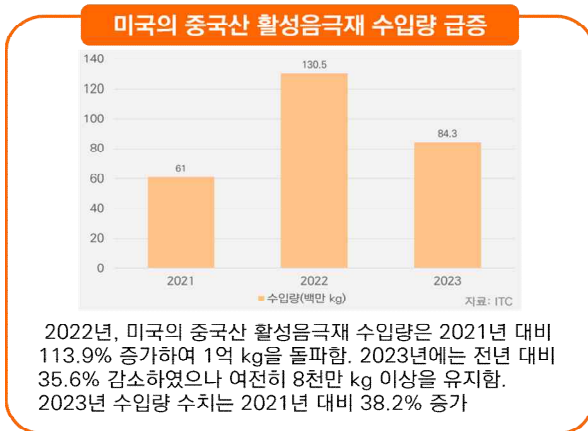
미국, 배터리 美, 중국산 음극재에 반덤핑관세 93.5% 부과 결정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이차전지 활성음극재에 93.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예비적 결정을 내렸으며, 12.5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 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제도
- 이는 미국 활성음극재생산협회(AAAMP)가 '24.12월 중국 업체들이 반덤핑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미국 연방 정부에 제기한 것에 따른 조치임
- 백악관은 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26년부터는 대규모 신규 공장을 가동시키며, '30년까지 동맹국 및 미국산 공급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임

미국의 중국산 음극재 반덤핑관세 부과 사유

일반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지만, 흑연은 미국 내 상업 생산이 거의 부재 상태이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는 '산업 설립 지연(Material Retardation)'을 입증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산 활성음극재 수입량의 급증, ▲중국산 활성음극재 저가 판매 실태, ▲낮은 시장 점유율, ▲재고량 증가,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 정황 등을 종합해 예비적 결정을 내림



**미국 음극재 생산업체 재고 증가**

ITC는 공개된 보고서에서 미국 음극재 생산업체들의 재고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국내 업체들이 경영·재무상 부담을 겪고 있음을 명시함

그러나 미국 음극재 생산업체들의 재고량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사유로 비공개 처리 되어 ITC의 공식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음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금 지급 실태 확인**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정부의 ▲직접 보조금 및 혜택, ▲수출 실적과 연결된 인센티브 제공, ▲인프라 투자 및 우대금리 적용 등의 구체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힘

중국의 활성음극재 생산업체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차등적인 상계관세율을 부과받음

기업	관세율(%)	사유
중국 생산업체 대부분	6.55	중국 정부로부터 표준화된 인센티브 수령
화저우 카이진	712.03	중국 정부로부터 대규모 인센티브 수령이 적발됨, 미 상무부 자료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누락된 정보가 다수 발견됨
상하이 샤오성	721.03	

출처: 로이터(7.18.), ITC('25.2.), ResearchAndMarkets('22.2.)

③ 시가 선정한 공급망 이슈

미국, 반도체 美,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반도체 관세 2주 후 발표 예상

시가 선정한 이슈

2025.7.18일부터 29일까지의 공급망 관련 이슈를 종합 분석한 결과, 7.28일 미국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반도체 관세를 2주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 것을 중요도가 높은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Q. 미국의 반도체 관세 도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A.

미국 내 반도체 생산·투자가 가속화되고, 한국·대만 등의 생산품의 미국 수출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유럽 등으로 분산시키고, 공급망 블록화 및 리쇼어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됩니다.

**Q. 미국 반도체 관세정책에 대비한 기업들의 전략은?**  
A.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 투자 확대, 현지화 비중 증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세 회피 목적뿐만 아니라 고객사와의 협력·시장 접근성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현지화로 미국 반도체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Q.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반도체 관세의 적용 범위는?**  
A.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는 미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수입 반도체(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등) 전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한국·대만·일본·EU 등 미국 외 생산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맹국과의 협상이나 예외 적용 여부는 관세정책 발표 시 결정됩니다.

이슈 더 알아보기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 조항임 1962년에 제정되었으며, 미국 상무부가 국가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관세 부과', '수입 쿼터', '협상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결정할 수 있음

▶ 미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반도체에 적용하고자 함

▶ 2025.4.1일, 미 상무부는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함. 현재 일반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조사에는 반도체 웨이퍼·칩·장비·파생제품 등이 모두 포함됨. 상무부는 적절한 조치로서 관세 또는 수입쿼터 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며,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리쇼어링'을 정책 목표로 제시

▶ 2025.7.27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수입관세와 관련된 국가안보 조치 결과를 2주 내 발표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주요 외신(로이터, CNBC) 등에 보도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비동맹 국가와의 무역협상과 연계해 반도체 관세 부과를 공식적으로 예고한 점이 강조됨

출처: 로이터(7.28.), White & Case(4.16.)

▶ 삼성전자 파운드리, 美 테슬라와 대규모 수주 계약

- ▶ 삼성전자는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 165억 달러(약 22.8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삼성전자의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이며, 최초로 2μm 공정에서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삼성은 '26년 말 완공 예정인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신규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 주행 시스템 반도체인 A16을 생산할 예정임
- ▶ 삼성전자는 '25.4월, 미국 텍사스주의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170억 달러(약 23조 원)에서 440억 달러(약 59.5조 원)로 확대함. 이는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한 관세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대표적 사례로 풀이되며, 이를 통해 삼성은 현지 생산 확대, 대형 고객사 확보, 미국 내 정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 역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납품이 가능한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임.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시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부담 없이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2μm 공정 수율 개선, ▲TSMC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 ▲생산 공장의 거리적 이점 등의 이유가 있음

출처: 로이터(7.29.), WSJ(4.15.)

◆ **산업·품목 심층 분석**

**글로벌,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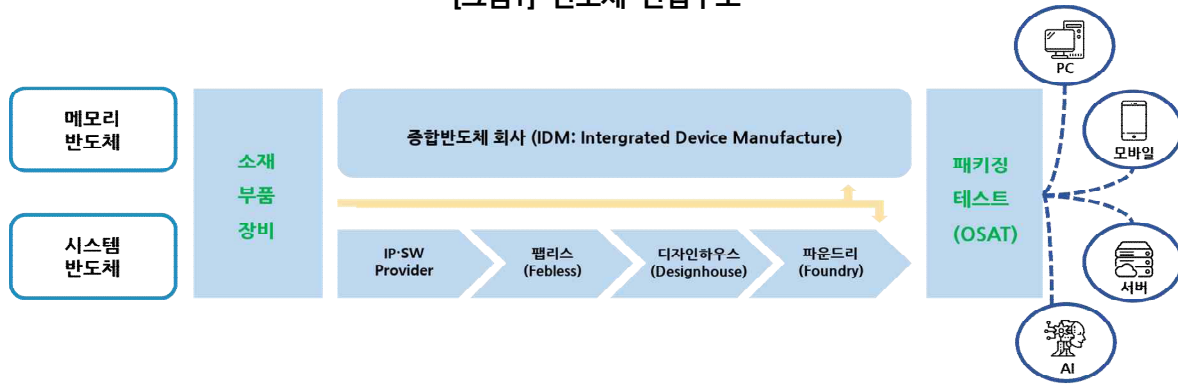
작성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고종완 실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형성**

☐ 반도체는 설계, 제조 등을 직접 수행하는 기업과 반도체 제조를 위한 장비·소재·SW·IP·공급 기업 등으로 구성

➡ 다양한 소재·부품·장비 투입 → 대규모 설비를 활용한 생산 → 다수의 수요산업(IT·가전·자동차·에너지 등)에 공급

[그림1] 반도체 산업구조



[표1] 구분 및 역할

구분	역할
1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웨이퍼·가스·케미컬 등), 장비(노광·증착·에칭·측정 등), 부품(펌프·소켓 등)을 생산하여 공급
2	IDM 설계·제조·테스트·패키징 등 모든 제조과정을 수행하는 중합반도체회사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3	IP Provider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식재산(IP)을 개발하여 IDM, 팹리스에 제공 (라이선스료, 로열티수입)
4	SW Provider 소프트웨어 설계에 필요한 EDA Tool*을 제작하여 공급 * Electronic Design Automation, 반도체 회로의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툴
5	팹리스 (Fabless)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 제조시설 없이 설계, 개발만을 수행하는 업체로 설계한 회로는 생산 전문업체(파운드리)를 통해 위탁생산
6	디자인하우스 팹리스가 설계한 회로 데이터를 파운드리에서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7	파운드리 (Foundry) 파운드리(Foundry)는 외부 업체가 설계한 반도체를 위탁생산, 공급하는 Fab을 보유한 전문생산업체 (초기에 대량 설비 투자비용 발생)
8	패키징/테스트 (OSAT)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위탁 기업으로 포장(패키징), 검사(테스트) 제공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 출처: 반도체협회

- 반도체 산업 규모의 성장과 함께 국가별·기업별 역할이 세부적으로 분업화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Value Chain 형성)
  - ITA협정('96년 1차, '15년 2차)으로 반도체 및 반도체 SW, 전용장비의 무관세가 확대되며 글로벌 반도체 분업화를 더욱 촉진
- 국가별 반도체 산업은 자국 적합형으로 성장하였고, 설계는 미국, 생산은 대만·한국, 조립(후공정)은 중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과 미국 등이 주도
  - 단계별·국가별 역할이 명확함 →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공급망 형성

[그림2] 국가별 반도체 산업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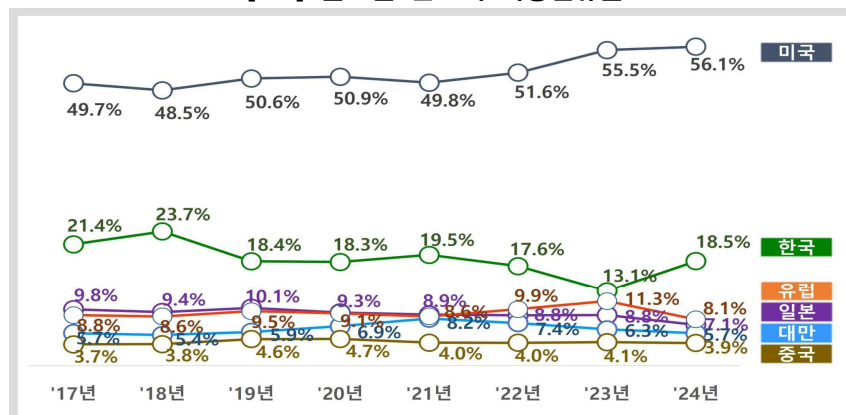


\* 출처: 반도체협회

## 한국 반도체산업 현황

-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약 56%를 점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2013년 이후 시장점유율 2위 지속 점유('24년 18.5%)
  - 단, 본 점유율은 반도체 최종제품 기준으로, 파운드리와 소부장 산업 포함 시, 대만·중국 등에 비해 종합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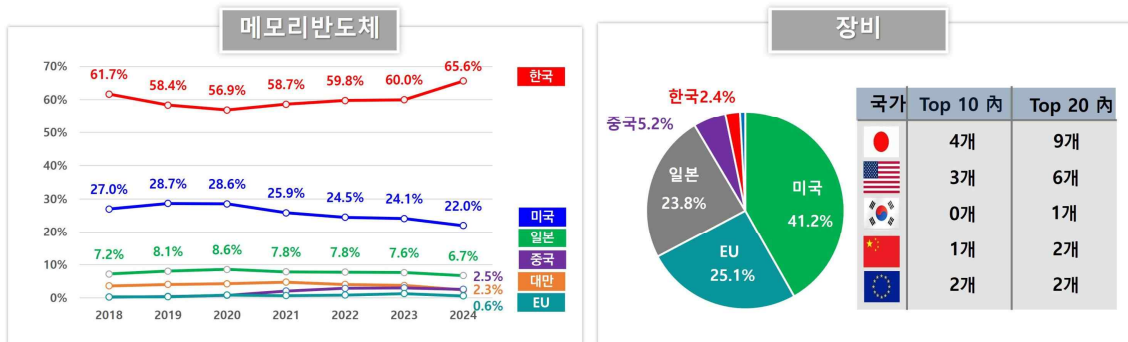
[표2]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



\* 출처: OMDIA

- 메모리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65.6%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음
- 단, CXMT, YMTC 등 중국계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며,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범용 메모리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음
- 하지만, 제조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 EU, 일본 등이 주도권을 갖고 있고, 상위 50개 기업 기준 우리 기업 점유율은 2.4%에 불과
- 반도체 제조장비 산업에 있어서도 NAURA, AMEC과 같은 중국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빠르게 성장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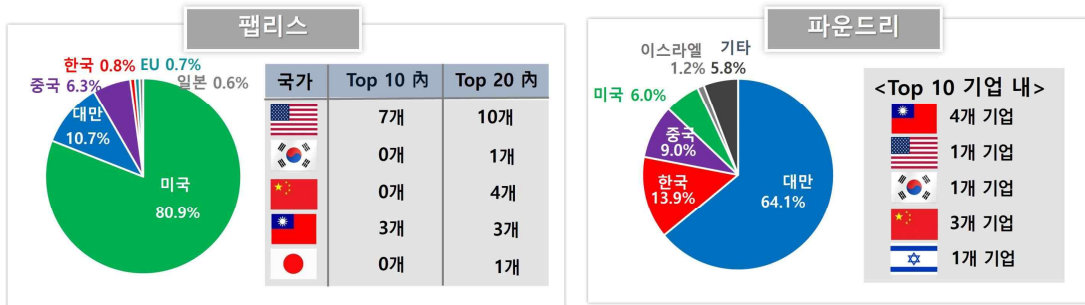
[그림3]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장비 시장점유율



\* 출처: OMDIA, Gartner

-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미국과 대만이 각각 설계, 제조 부분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저조한 점유율 기록하고 있음
- 하지만, 파운드리에서 선단공정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고, 설계 분야도 AI 반도체에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음

[그림4] 글로벌 팹리스, 파운드리 시장점유율



\* 출처 : OMDIA, IC Insights

- 종합적으로 한국은 제조공정(소자대기업) 역량은 우수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기술(소부장, 설계) 경쟁력은 미흡
-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반도체 제조기업(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의 지속적인 투자 및 생산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취약 분야인 팹리스(설계),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성 대두

- 국가 간 정치적 갈등·분쟁, 자연재해, 전염병 등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은 공급망의 효율성보다 안정성과 회복력에 집중
- ▷ 자체 반도체 기술 및 제조시설 보유의 중요성 증대



2019년

일본수출규제로 산업에 정치 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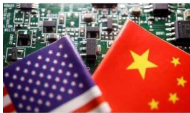
2021년

글로벌공급망 불안정성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  
미국발 공급망 자국화 경쟁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장기화 반도체 원재료 수급 이슈  
미정부 대중국 반도체 SW, 장비 수출통제 강화



2024년

미정부 Si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대중 수출통제 강화  
중정부 희토류 등 반도체 원재료 수출통제 강화 맞대응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리튬** | 독일, 청정 리튬 생산 위해 Vulcan Energy에 대규모 지원

- ☐ 독일 정부는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Vulcan Energy에 1억 400만 유로(약 1,700억 원) 지원
- ▶ 해당 지원금은 '25.10.1일부터 36개월에 걸쳐 지급되며, 특히 독일 오버라인 벨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리튬 생산시설 개발을 목표로 함
- ▶ 자동차 산업은 독일 GDP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어 배터리 소재에 대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출처: 로이터(7.22.), Discovery Alert(7.28.)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4주)**

**비철금속** | 美 관세 리스크 완화로 동 가격↑, 中 산업 구조조정으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6월	전년비(%)	7.3주	7.4주	전주비(%)
동	9,147	9,432	3.1	9,587	9,829	2.5%
니켈	16,812	15,372	△8.6	14,845	14,845	3.1%
아연	2,779	2,739	△1.4	2,713	2,846	4.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 (동) 미국 관세 리스크에 대한 시장 우려 완화 및 中 스마트공장 계획에 대한 수요 증가 전망으로 동 가격 상방 압력 발생
  - ▶ 단, 2분기 생산 차질을 빚은 메이저 광산들이 정상 생산에 진입하여 상기 상방 압력 일부 상쇄
- ☐ (니켈) 中 공업정보화부의 산업 구조조정 발표 및 일부 니켈 광산의 생산량 감소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철강** | 中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감 및 재고량 감소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6월	전년비(%)	7.3주	7.4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06.85	△21.7	112.05	112.32	0.2%
원료탄	240.90	184.88	△23.3	173.1	175.9	1.6%
철광석	109.89	100.38	△8.7	98.93	103.49	4.6%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량)

- ☐ (유연탄) 유럽 및 남아공의 유연탄 공급망 차질 및 계절성 수요 확대로 가격 상승
- ☐ (철광석) 中 정부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발표 등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및 中 철광석 재고 감소로 가격 상방 압력 발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7월 4주)

**희소금속** | 생산시설 유지보수 및 감산 계획으로 탄산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6월	전년비(%)	7.3주	7.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096	△8.8	1,048	1,048	-
탄산리튬	12,526	9,618	△23.2	9,178	9,939	8.3%
수산화리튬	11,398	9,241	△18.9	8,153	8,573	5.2%
코발트 (U\$/lb)	16.25	17.42	7.2	19.5	19.5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42,642	△5.7	265,500	265,500	-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1,234	10.0	67,440	72,190	7.0%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탄산리튬)** ▲노후된 생산시설 유지보수, ▲채굴 허가 이슈, ▲감산 계획 등으로 탄산리튬 가격 전주 대비 상승

☞ 단, 주요 생산업체 간의 저가 경쟁 억제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내수시장은 안정화

**(수산화리튬)** 원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삼원계 배터리 양극재 수요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수산화리튬 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

**에너지** |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브렌트유 가격 소폭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7.3주	7.4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1.66	△7.92	70.51	70.72	0.22
브렌트유	79.86	70.58	△9.28	69.05	68.87	△0.18
WTI	75.76	67.44	△8.32	66.95	66.17	△0.78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원유)** 美-주요국 간 무역 합의 지연으로 유가 하락을 견인했으나, 일본과의 무역 합의가 발표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어 유가 하락폭 상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7.22일 일본과 무역 합의 발표로, 8월로 예고된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시장 우려 완화

☞ 단, 유럽연합(EU)의 제18차 대러 제재 패키지 발표 및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제한 조치 등 잠재적 공급 차질 요소가 부각되며 유가 하락폭을 제한

## 월간 공급망

### ▶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개편 추진

작성 KOTRA 워싱턴D.C.무역관

## 1. 개요

### ☞ 트럼프 행정부, 감세법 발효로 IRA 기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전면 개편

- ☞ 트럼프 대통령은 총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 및 재정조정 패키지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서명함에 따라 공식 법률로 제정(7.4.)
  - ▶ 주요 내용으로 ▲트럼프 1기 감세조치 영구화, ▲복지지출 구조조정, ▲국방·국경 안보 예산 확대,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및 요건 강화 등을 포함
- ☞ 바이든 행정부 추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제지원 제도를 대폭 수정하며, 향후 미국의 에너지·세제·투자 환경에 구조적 변화 초래 전망
  -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관련, ▲청정에너지 설비 세액공제 조기 종료, ▲외국우려법인(FEOC) 규제 전면 확대, ▲국산 부품 요건 강화 등 전면적인 개편 단행

#### 〈 트럼프 감세법안 추진 경과 〉

날짜	주요 경과 및 표결 결과
'25.5.20.	미 하원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발의 (H.R.1)
'25.5.22.	하원 본회의 통과 (찬성 215 : 반대 214)
'25.7.1.	상원 수정안 통과 (찬성 51 : 반대 50, 부통령 캐스팅보트 포함)
'25.7.3.	하원의 상원 수정안 재가결 (찬성 218 : 반대 214)
'25.7.4.	트럼프 대통령 최종 서명 및 법률 공포

[자료] 미 의회 자료 종합

### ☞ 주요 조항별 변경 내용 : 재생에너지 설비 세액공제 (IRC §45Y, 48E)

- ☞ 재생에너지 설비에 적용되던 생산세액공제(PTC) 및 투자세액공제(ITC)의 적용 대상 및 적용 기한을 단계적으로 축소·조정
  - ▶ 태양광·풍력 설비는 '26년 7월 4일 이후 착공 시 '27년 12월 31일까지 가동을 완료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26년 7월 4일 이전 착공분은 기존 혜택 유지
  - ▶ 주거용 태양열 온수설비 및 소규모 풍력설비는 제3자 임대(리스) 방식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에너지저장장치는 '27년 이후 설치분도 세액공제 혜택 지속
- ☞ 지열·수력·SMR 등 기타 청정전력 설비는 '33년까지 착공분에 한해 100% 공제 적용, '34년 75%, '35년 50%, '35년 12월 31일 이후 전면 종료 예정

## ☐ 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설비 세액공제 (IRC §45V, 45Z)

- ☞ 청정수소 생산설비 세액공제(§45V)는 '27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설비에 한해 적용되며, 이는 기존 IRA 기준('33년까지) 대비 5년 조기 종료
- ☞ 청정연료 세액공제(§45Z)는 적용 기한을 '27년 ~ '29년 말까지 2년 연장하되, 세부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
  - ▶ '25년 이후 생산분부터 Sustainable Aviation Fuel(SAF) 공제액을 기존 \$1.75/갤런에서 \$1.00/갤런으로 축소
  - ▶ SAF 연방 소비세 크레딧(Excise Tax Credit)은 '25년 9월 30일 이후 종료
  - ▶ 동일 원료를 사용한 중복공제(Double Counting) 불인정
  - ▶ 음의 배출(Negative Emission) 기반 공제 불인정
  - ▶ 원료(feedstock)는 미국·멕시코·캐나다산으로 제한

##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IRC §45X)

- ☞ IRA 부품·광물별 공제 구조를 유지하되, 일부 항목의 공제 대상 및 단가 조정
  - ▶ (풍력 부품) '27년 이후 판매분부터 세액공제 적용 제외
  - ▶ (핵심 광물) '31년부터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33년 이후 전면 종료
  - ▶ (핵심 광물) '31년부터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33년 이후 전면 종료
  - ▶ 동일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통합부품의 경우, 미국산 주요 구성요소가 전체 원가의 65% 이상일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

## ☐ 탄소 포집·활용 세액공제 (IRC §45Q)

- ☞ 탄소 처리 방식(상업 활용·영구 저장)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차등 공제율 구조 폐지, 모든 방식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단일 공제 체계로 일원화
  - ▶ 영구 저장, 석유회수증진(EOR), 상업적 활용 등 탄소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톤당 85달러의 단일 공제율 적용
  - ▶ 소규모 시설의 상업 활용분에 대해서는 기존 톤당 12달러 공제액을 17달러로 상향

## ☐ 전기차 및 에너지효율 세액공제 (IRC §30D, 25E, 45W, 30C, 25C, 25D, 45L)

- ☞ 전기차 세액공제는 '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차량의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신차(§30D), 중고차(§25E), 상업용 전기차(§45W) 전 항목에 일괄 종료
  - ▶ 전기차 충전소 설치 세액공제(§30C)는 '26년 6월 30일 이후 설치분부터 적용 제외
  -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25C), 주거용 재생에너지 설비(§25D), 고효율 신축 주택(§45L) 세액공제는 '25년 말 또는 '26년 중 단계적 종료 예정

## ☐ 고효율 상업용 건물 및 에너지설비 감가상각 조정 (IRC §§179D, 48)

- ☞ 고효율 상업용 건물 세액공제(§179D)는 '26년 6월 30일 이후 착공분부터 적용 제외
  - ▶ 에너지설비에 대한 5년 MACRS 가속 감가상각(§48)은 '24년 12월 31일 이후 착공분부터 적용 제외되나, 풍력·태양광 설비는 감가상각 특례 지속 적용

**☐ 외국우려법인(FEOC) 개념 확대 및 세액공제 제한 전면 적용**

**🔍 IRA에 규정된 외국우려법인(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개념 확대**

- ▶ 지정외국법인(Specified Foreign Entity)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정부 및 산하 계열사·자회사를 포함하며, 해당 국가의 시민·법인 및 군사 관련 기업까지 포괄
- ▶ 외국영향법인(Foreign-Influenced Entity) ▲SFE가 이사 또는 임원 선임권 보유, ▲단일 SFE가 25% 이상 지분 보유, ▲복수 SFE가 40% 이상 집단 지분 보유, ▲SFE가 15% 이상 부채 보유, ▲SFE와의 계약·지분을 통해 실질적 통제권 행사

**🔍 외국우려법인 연계 세액공제 제한 요건 및 적용기준 확대**

- ▶ 소유·지배 제한(Ownership Rule)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SFE 또는 FIE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불인정
- ▶ 실질 통제권 제한(Effective Control Rule) SFE와의 계약·라이선스·위임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주요 공정·설비에 실질적 통제권이 행사된 경우 공제 제한
- ▶ 물질적 지원 제한(Material Assistance Rule) 제조원가 또는 자재 조달 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을 SFE 또는 FIE로부터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 FEOC 물질적 지원 배제 기준(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 >**

구분	기준비율
발전·저장장치	'26년 50%, '27년 45%, '28년 50%, '29년 55%, '29년 이후 60%
에너지저장장치	'26년 55%, '27년 60%, '28년 65%, '29년 70%, '29년 이후 75%
태양광부품	'26년 50%, '27년 60%, '28년 70%, '29년 80%, '29년 이후 85%
풍력부품	'26년 85%, '27년 90%, '28년 N/A, '29년 N/A, '29년 이후 N/A
인버터	'26년 50%, '27년 55%, '28년 60%, '29년 65%, '29년 이후 70%
배터리부품	'26년 60%, '27년 65%, '28년 70%, '29년 80%, '29년 이후 85%
핵심광물	'26~'29년 0%, '30년 25%, '31년 30%, '32년 40%, '32년 이후 50%

[자료원] Latham & Watkins 로펌('25.7.8.)

**☐ 국내산 부품 및 원자재 사용 요건 강화**

**🔍 청정에너지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 산정 시 국내산 콘텐츠 비율 요건 대폭 상향**

- ▶ 투자세액공제(§48E)는 '25년 말까지는 미국산 부품 4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26년 이후 착공 설비는 45% 이상으로 요건 강화, 이후 연도별로 단계적 상향 예정
- ▶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각 부품 및 원자재별로 SFE 연계 여부와 미국산 여부를 검증하며, IRS는 하위 부품까지 추적 가능한 'Look-through 기준' 적용 예정

### ☞ 청정에너지 연방지원 프로그램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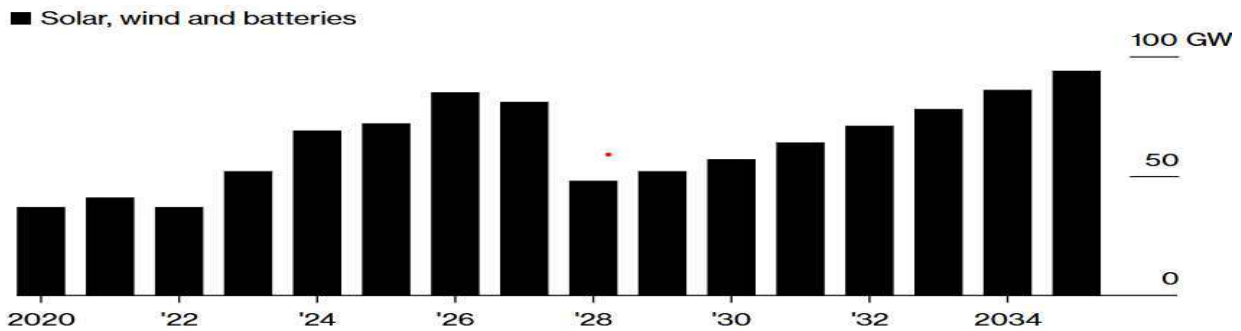
- ☞ IRA 기반 청정에너지 지원 예산을 대거 폐지하거나 미집행 예산 회수
  - ▶ 대표적 폐지 항목으로, ▲온실가스 감축기금(270억 달러), ▲기후정의 블록그랜트(30억 달러), ▲저탄소 건축자재 지원(1억 달러), ▲청정 중장비 지원(10억 달러), ▲송전망 구축 지원, ▲수소 운차보증 프로그램 등 다수 포함
  - ▶ 환경보호청(EPA), 에너지부(DOE), 교통부(DOT), 백악관 환경품질위원회(CEQ) 등 주요 부처별 청정에너지 관련 예산 삭감

## 2. 현지 반응

### ☞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 종료에 따른 설비투자 급감 및 시장 충격 우려

- ☞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제정으로 '28년 미국의 신규 청정에너지 설비는 48GW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7년(81GW) 대비 41% 급감한 수치
  - ▶ 블룸버그는 청정에너지 업계의 높은 세제지원 의존 속에서 세액공제 종료로 투자 위축 및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공급 불균형 초래 가능성 제기
  - ▶ 에너지 분석기관 Enverus는 태양광의 약 70%가 세액공제 종료 시 경제성을 상실하고, 풍력은 일부 유지하나, 단기 투자 위축 및 시장 구조 재편 불가피 전망

〈 美 신규 청정에너지 설비 추이 〉



[자료] BloombergNEF

### ☞ 공화당 주 중심의 청정에너지 투자 위축 및 지역경제·정치권 우려 확산

- ☞ IRA 기반 청정에너지 투자의 약 75%가 공화당 주(州)에 집중된 가운데,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으로 지역경제 충격 및 정치적 갈등 심화 양상
  - ▶ 유타주는 총 30억 달러의 투자와 1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으나, 세액공제 조기 종료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 위기 직면
  - ▶ 유타·알래스카·노스캐롤라이나·캔자스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세액공제 종료로 지역 일자리 및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 입장 표명

[자료] 백악관, 현지 언론(블룸버그, 로이터 등) 및 현지 로펌(Latham & Watkins 등) 자료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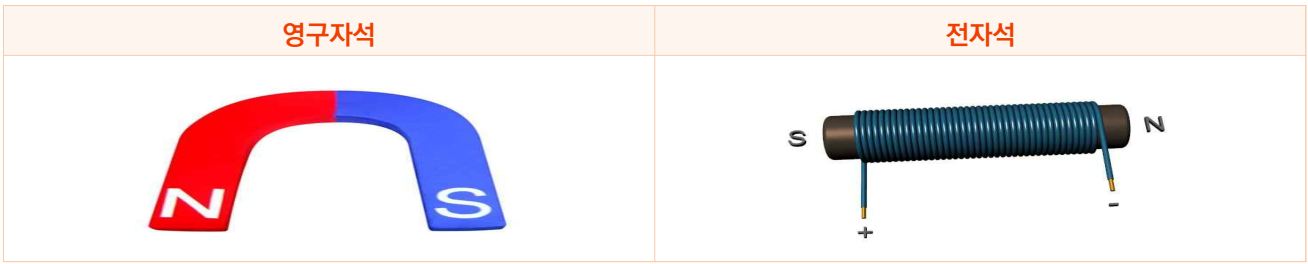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 전기동력화 시대의 주역, 영구자석

영구자석은 냉장고, 정수기 등 일반 생활용품에서부터 전기자동차, 풍력터빈, 첨단무기 등 산업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구자석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1. 영구자석의 개념

□ 영구자석은 전자석과 달리 외부에서 전류를 공급하지 않아도 자성을 유지하는 자석



구 분	자성 유지	자기장 크기	주요 원소재	자극(N극·S극)
영구자석	반영구적*	제조 후 제어 불가능	강자성 물질	반전 불가능
전자석	일시적(전류 필요)	전류 크기 조절하여 제어 가능	연자성 물질	반전 가능

\* 고온, 기계적 충격·진동, 화학적 부식, 장시간 사용, 역자화 등에 의해 감소 가능

## 2. 영구자석의 중요성

□ 영구자석의 자기장을 매개로 전기 에너지와 기계 에너지간 상호변환 가능



□ 영구자석형 전기기계(전동기·발전기)는 전자석 구조 대비 효율·소형화·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

- ③ 영구자석형 전기기계는 슬립링·브러쉬간 마찰 손실, 회전자 권선 동손 등이 없어 효율 우수
- ③ 영구자석형 전기기계는 슬립링·브러쉬 또는 전력변환장치(컨버터·인버터)가 없어 소형화 가능
- ③ 영구자석형 전기기계는 브러쉬 마모 문제가 없고 회전자 발열이 많지 않아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리

구분	에너지 효율	소형화	유지보수	가격	용도
영구자석형 전기기계	고효율	유리	유리	고가	전기차, 풍력발전
권선형(전자석) 전기기계	저효율	불리	불리	저가	크레인

□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전환, 전기동력화로 영구자석의 글로벌 수요는 증가 추세\*

\* 네오디뮴 자석의 글로벌 수요 전망(만t) : ('20년)11.9 → ('50년)75.3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영구자석은 자동차 부품,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산업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구분	영구자석 활용
자동차	▶ 전기차 구동 모터, 회생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장 부품에 활용
신재생에너지	▶ 풍력터빈 발전기에 대형 고성능 네오디뮴 영구자석 사용
가전·IT 제품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믹서기, 스마트폰, 스피커, 헤드폰 등에 부품으로 활용
산업 자동화 설비	▶ 로봇, 전동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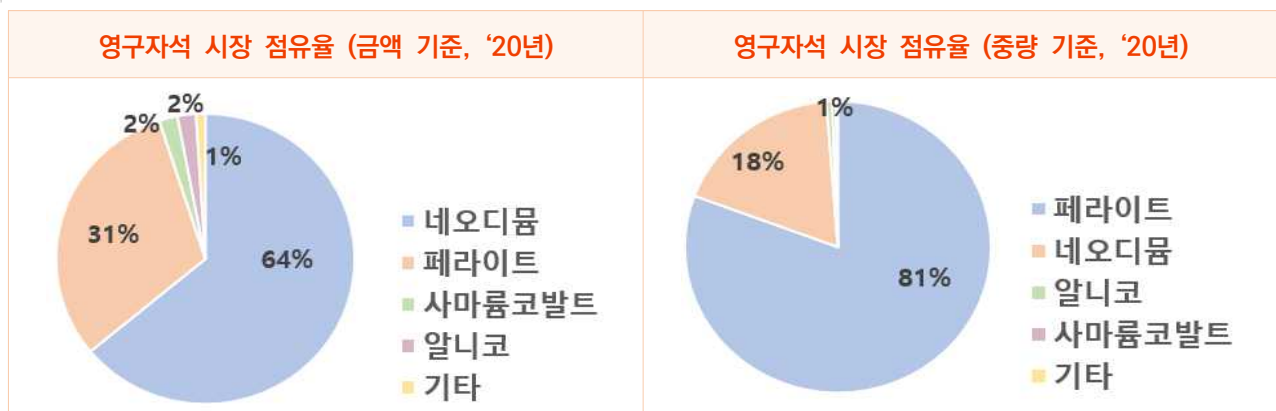
### 3. 영구자석의 종류

□ 영구자석은 원소재에 따라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페라이트, ▲알니코 자석으로 구분

희토류 영구자석

자석 종류	주요 원소재	장점	단점	용도
네오디뮴	▶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철·붕소	▶ 에너지밀도 최고 ▶ 사마륨보다 저렴	▶ 고온에 취약 ▶ 깨지기 쉬움	전기차·풍력발전
사마륨·코발트	▶ 사마륨·코발트	▶ 에너지밀도 높음 ▶ 내열성·내부식성	▶ 고가 ▶ 깨지기 쉬움	항공우주·방산
페라이트	▶ 산화철·바륨·스트론튬	▶ 저렴한 가격 ▶ 내부식성	▶ 에너지밀도 낮음	범용
알니코	▶ 철·알루미늄·니켈	▶ 기계적 강도 높음 ▶ 내열성	▶ 에너지밀도 낮음 ▶ 가공 어려움	일부 센서·계측기

□ 에너지밀도가 높은 네오디뮴, 저렴한 페라이트 자석이 높은 시장점유율 차지



## 공급망 소식통

### 2025 WCE 연계 그린에너지·환경산업 수출 프로젝트 상담회(~8.15.)

작성 | KOTRA 해외프로젝트실

W

C

E

World  
Climate  
Industry  
Expo

#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연계 그린에너지·환경산업 수출 프로젝트 상담회 신청안내

**일시/장소**

'25. 8. 27.(수) ~ 8. 29.(금)  
부산 벅스코 제2전시장

**참가규모**

국내·외 140여개사  
(해외) 바이어 40개사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 100여 개사

**참가 산업 분야**

구분	유치 분야
<b>환경</b>	상하수도처리, 폐수처리 / 폐기물 소각, 매립, 폐열발전 / 해수담수화 대기, 토양, 지하수 오염복원 / 환경측정장비, 펌프, 밸브 등 / 친환경 제품 등
<b>에너지</b>	태양광, 풍력, 수력, 그린수소, 원전, 전력 / 에너지절감, 효율, 신광원 등 전력계량시스템(AMI),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바이오, 연료전지, 지열 등

**행사구성**

(8.27-8.29)  
발주처&바이어 1:1 상담

**모집대상**

환경·에너지 분야 해외 발주처 및  
바이어 상담 희망 국내기업

**지원사항**

상담주선, 통역지원, 후속 마케팅 등

**추진일정**

사업참가 신청  
~ '25.08.14

>

바이어 최종 승인  
'25.07.11

>

상담 주선 기간  
'25.07.11~08.14

>

상담 스케줄 확정  
'25.08.20

>

상담회 진행  
'25.08.27~08.29

**신청하기**

1. 행사 참여 신청하기 : <https://bisat.eqqui.com/bis/preMatchEventBuyerList/43>  
 2. 로그인 후 셀러 정보 입력 및 상담 매칭 신청 : <https://bisat.eqqui.com>

**문의처**

KOTRA | 02-3460-7483, 7497 / [green@kotra.or.kr](mailto:green@kotra.or.kr)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주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 글로벌 경제지표 [ '25.7.29일 (화) ]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5말	7/25	7/28	7/29	전일비	전년말비
₩/US\$	1,288.00	1,472.50	1,380.10	1,377.90	1,382.00	1,391.00	0.65%	△5.53%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376.60	1,376.50	1,380.20	1,388.80	0.62%	△5.77%
₩/CNY	181.37	202.38	192.00	192.56	192.56	192.56	0%	△4.85%
₩/¥100	912.25	932.67	959.00	937.54	932.96	938.22	0.56%	0.60%
¥/US\$	141.19	157.88	143.91	146.97	148.13	148.26	0.09%	△6.09%
US\$/EUR€	1.1105	1.0429	1.1341	1.1749	1.1715	1.1572	△1.22%	10.96%
CNY/US\$	7.1092	7.2992	7.1903	7.1627	7.1695	7.1752	0.08%	△1.70%

\* '24년 평균 환율: (₩/US\$)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S\$) 1,419.07원, (₩/¥100) 958.44원

###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7/29	7/29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71.11	72.51	1.4	2.2	△3.4	
					2.0%	3.1%	△4.5%	
철광석	89.35(9.23일)	100.00	100.10	101.90	1.8	12.6	1.9	
					1.8%	14.0%	1.9%	
비철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783.00	9,733.50	△49.5	1648.0	1027.5
						△0.5%	20.4%	11.8%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632.50	2,609.00	△23.5	499.0	92.5
						△0.9%	23.6%	3.7%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050.00	14,950.00	△100.0	△15.0	△150.0
						△0.7%	△0.1%	△1.0%

###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5말	'25.6말	7/24	7/25	7/28	7월(~28)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2.83	5.50	5.50	5.48	5.47	5.48
(%, YoY)	△14.8	10.8	0.5	48.5	190.5	174.9	174.5	174.6	177.7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7.54	8.60	9.35	9.35	9.48	9.06
(%, YoY)	△2.3	4.0	3.9	18.2	35.6	48.3	48.3	50.3	43.4

###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7/11	7/18	7/25	전주비(7/18)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733.29	1646.9	1592.59	△3.3%	△35.3%

###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7/24	7/25	7/28	7/29	전주비(7/28)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2258	2257	2226	2109	△5.3%	111.5%

#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 주관기관



###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